

광주시·전남도 대선공약 발굴 속도낸다

시, 광주 신성장 산업밸리 조성 등 47건 보고회 도, 목포~제주 해저터널 포함 내년 초까지 마련

광주시와 전남도가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지역 발전을 이끌 대형프로젝트 사업 발굴에 나섰다. 특히 대통령 탄핵안 기결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됨에 따라 대선공약 마련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광주시는 14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광주미래비전자문단 대선공약 발굴보고회를 열고 분과별로 제안된 대형프로젝트 47건을 보고하고 논의했다.

미래비전자문단은 지난 9월 말 산업·경제분야 등 6개 분야 85명으로 구성됐으며 그동안 분과별 회의와 보고회를 20여 차례 열고 공약 발굴에 나섰다.

윤장현 시장이 직접 주재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분과회의에서 발굴한 대형 국

책사업과 파급효과가 큰 지역 간 연계 협력사업 등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사업 47건이 보고됐다.

자율지능형 스마트 E-시티 조성, 차세대 기초과학연구 클러스터 조성, 국립 초미세먼지 연구소 광주 건립, 광주 신성장 산업밸리 조성 등 지역형 미래 먹거리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분야별 대형프로젝트 사업은 산업 경제 분야 11건, 환경 안전 분야 5건, 도시 교통 분야 7건, 문화 체육 분야 8건, 복지 여성 분야 6건, 자치 인권 분야 5건, 영 스크-탱크 전달팀 담당 5건 등으로 사업비 규모는 23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광주의 미래 먹거리 신사업

개발 사업으로는 스마트 DC에너지 타운 조성, 전장부품산업 메카조성, 수소차 등 차 허브도시 조성 등 11건(5조8499억원)이 제시됐다.

무등산국립공원·광주호 영산강 황룡강 등 자연자원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광주비엔날레 등 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은 13건(1조7559억원)이다.

또 지역의 매력적 콘텐츠 발굴과 연계한 사업 7건(14조5532억원)도 포함됐다. 광주시는 보고회 내용을 토대로 광주전남연구원과 함께 제19대 대선공약 마련을 위한 공동 집필진을 구성해 공약을 완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선정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1월께 확정해 각 정당에 지역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채택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전남도도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19대 대선공약사업 발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전남연구원이 전남 권역별을 순회하며 대선공약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을 수렴중이며, 전남 22개 시·군의 부시장·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별도로 구성해 전남 미래 비전 실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선공약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전남도는 목포~제주 해저터널과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고속화 등 SOC와 문화·관광 등 전남 주력 현안과 핵심 사업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신규 사업도 함께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라선 고속철 국가계획 반영을”

남해안남중권발전협, 5개 건의문 채택

전남과 경남을 아우르는 남해안권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해당 권역을 통과하는 철도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회장 이창희 진주시장)는 14일 진주시청에서 연 제8차 정기회의에서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5개항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전라선 고속철도와 함께 전라선 KTX 증편 및 수서발 고속철도(SRT) 전라선 운행 추가,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직선·전철화 사업 조기 시행, 보성~임성리 철도 복선전철화 사업, 국도 77호선 노선 변경 등이다.

협의회는 “전라선권 주요 관광지 이용 잠재고객은 연간 2800만명 이상이고 KTX 이용객 또한 매년 40% 이상 늘어나는 등 경부선과 호남선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라선 KTX는 하루 평균 왕복 운행 횟수가 8회 증편(20회→28회)에 불과해 경부선(63회 증편)과 호남선(34회 증편)과 비교하면 저조해 반드시 운

행증편과 수서발 SRT노선에 포함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전라선 익산~여수 구간은 경부선·호남선에 비교하면 저속전철에 불과한 수준으로 전라선 익산~여수 구간 고속철도 사업을 조속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날 현재 증·개축하는 진주 중앙지하도 상가에 남중권 9개 시·군 상생발전 및 협력을 위해 남중권 특산물점을 배치하는 2017년 내내 신규 사업을 심의했다.

이와 함께 남중권 9개 시·군의 생활문화·예술계 교류를 통해 예술 작품을 창작하고 영호남인의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 ‘남중권 생활문화·예술제’ 개최 안전도 논의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동서화합의 상징지역인 전남(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과 경남(진주, 사천, 남해, 거동)의 9개 시·군이 남해안 경제권 거점형성과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해 2011년 5월 창립했다.

최권일기자 chadol@kwangju.co.kr



적십자 회비 모금 ‘사랑의 등불 점화식’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최상준)는 14일 광주 북구 매곡동 지사 강당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적십자 회비 모금 시작을 알리는 ‘사랑의 등불 점화식’을 갖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도 내년 과학기술진흥 2115억 투자

올해보다 15.6% 늘어

4대 미래산업 집중투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전남도가 투자를 대폭 늘린다.

전남도는 14일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정기회의를 열어 지방과학기술 종합계획 5차연도인 내년 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256억원(15.6%) 늘어난 2115억원으로 확정했다.

전남도는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과학·산업기술 개발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목표를 두고 에너지, 농수산, 문화관광, 생물약학 등 4대 미래산업에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110개 과제가 추진 대상으로 자원별로는 국비가 55.9%인 1183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비는 666억원(31.5%), 기타 민간 266억원(12.6%)이다.

최권일기자 chadol@kwangju.co.kr

천정배 “대선 출마 적극 검토”

“연말까지 결심할 것”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14일 “이번 대선 출마에 대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연말까지는 결심해서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나주시 다도면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열린 국민의당 광주시당 핵심당직자 연수에서 “호남에 유력 대선후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저 자신도 생각과 책임을 가지고 의견을 교환 중”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젊은 정치 지도자인 ‘뉴DJ’를 키우고 유력한 호남 대선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고 약속했다”며

“호남에서 최소한 3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기존 대선 주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한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략적으로 호남 주자를 키워야 한다. 12월 안으로 호남 후보들이 가시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선거제도를 이대로 두고 개헌하자는 말은 반대한다”며 “선거구제가 아닌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지원 “늦어도 내년 3월 탄핵 결정 ... 대선서 반드시 정권교체”

국민의당 시당 연수회서 밝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4일 “헌법재판소가 늦어도 3월까지(탄핵소추안)를 판단할 것이고, 그러면 곧바로 대선이 있을 것인데,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나주시 다도면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열린 국민의당 광주시당 핵심당직자 연수에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명명백백



이어 “하지만, 박 대통령은 무서운 분이기에 어떻게든 이를 상쇄시키려고 할 것”이라며 “이에 현재 판사들이 헛것인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지난

2일에서 9일로 미뤄던 일을 설명하며 “최근 안철수 전 대표가 광주에서 지지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누구나 분노할 수 있지만 정치 지도자는 국민의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이다 발언은 누구나 할 수 있다”면서 “국가가 어려울 때 같이 분노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불안한 국민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국가를 이끌고 갈 사람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국민의 분노 쫓음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주는 것이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가했는지 모르지만, 박지원과 안철수가 탄핵을 반대한다고 했다”면서 “또한, 어떤 당에서는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손잡고 정권을 잡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우회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호남 출신 대통령 후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천정배 전 대표에게 ‘당신이 안 나오려면 내가 나가겠다’고 했더니 천 전 대표가 (대선에) 나가겠다고 했다”며 천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을 거론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7년도 전기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비지원 FTA/국제무역전공 석·박사과정 모집

조선대학교 대학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FTA전문인력 양성기관입니다. (홍남연(조선대학교) / 수도권(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인하대학교))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과정 15명(4학기) / 박사과정 5명(4학기)

수업시간 및 교육내용
· 수업은 **주중 야간(19:00~)** 및 **토요일**에 실시함
· FTA비즈니스모델, 무역경영 및 수출입실무, 원산지제도 외

지원자격
·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자

전형방법
· 특별전형(서류전형 및 면접)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이메일 사전접수	2016. 12. 1(목) 10:00 ~ 12. 23(금) 17:00	· fta.business@daum.net 으로 지원자 연락처(성명, 소속, 연락처) 송부
인터넷 원서접수 (명문 및 우편접수 불가)	2016. 12. 27(화) 10:00 ~ 2017. 1. 9(일) 17:00	·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함 · 진학사(서울) http://www.jinhak.com/ (콜센터 1544-7715)
입학지원서(출력본) 및 서류제출	2016. 12. 27(화) 10:00 ~ 2017. 1. 10(화) 17:00	· 인터넷 접수 후 아래의 주소로 송부 또는 명문 접수 (우)61452 광주광역시 중구 팔문대로 309(서석동) 조선대학교 대학원 교학팀

※ 구술시험(면접),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일정은 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지

모집요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및 FTA비즈니스학과 문의 바랍니다.
전화 : FTA비즈니스학과 062)230-7283 대학원 062)230-6401

조선대학교 대학원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 · 정행진 · 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